

제416회 국회  
(임시회)

##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1일(목)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 상정된 안건

#### 1. 업무보고 ..... 2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09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장관직무대행이나 기관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회의는 국회방송, 국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 회의 때 인사를 하지 못하셨던 전진숙 위원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반갑습니다. 광주 북구를 전진숙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청소년 분야입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뒷받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업무보고

가. 여성가족부 소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09시36분)

○위원장 이인선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존경하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언제나 든든한 가족, 함께 만드는 미래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자녀양육 및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 하나 소외되는 가족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오는 9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선지급 대상 자격 심사부터 지급, 강제징수까지 통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족 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국가자

격제도 도입 등 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고자 합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별로 언어교육, 기초학습 및 교육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국 240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자살, 자해 등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인력과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립·은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발굴과 상담, 치유, 사후관리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신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첫 실태조사도 실시 중입니다.

셋째,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폭행, 살인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6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2 신고 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적극 연계하고 상담, 의료, 법률, 긴급주거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이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등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제 아홉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등을 통해 정부 정책 전반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59개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한편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경력 설계, 인사·노무·법률 등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실행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장과 더욱더 소통하는 한편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부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은주 여성정책국장입니다.

김가로 대변인입니다.

최문선 청소년정책관입니다.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입니다.

신경식 정책기획관직무대리입니다.

황윤정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차관회의 참석으로 현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장입니다.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입니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입니다.

전주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직무대행입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김기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7쪽 주요 업무추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이 네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등 자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가족센터를 통한 보호·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성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언어교육, 기초학습, 교육활동비 지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상담, 통·번역,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국의 가족센터를 통해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대상 사례관리나 위기가족 긴급생활동움, 심리·정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정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6000여 개의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일대일 상담,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전하게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자립지원수당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난 3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전국 12개소에서 전담 상담사를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발굴과 일상 회복, 학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진학, 문화·체육 활동, 건강,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박이나 마약류 등 불법 유해 정보를 점검하는 등 유해 약물과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청소년디딤센터도 연차별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충하여 학교 후에 돌봄과 학업을 지원하고 전국 7개소의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해 우주, 해양, 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 기관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지난 4월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기반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제폭력은 초기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피해자 지원 기반을 통해 상담, 법률, 의료 등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응하여 기관장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기간을 단축하고 의무 미이행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의 성 착취물 삭제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성착취 상담·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는 인신매매방지법을 시행하여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 적용하는 등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등을 확대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법령, 기본계획, 주요 정책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 부문 대상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을 지원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 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제4차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 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 159개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상담, 인턴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재직 여성을 위한 상담 등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 내 성별균형 문화와 다양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별임금통계 조사·발표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관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본회의가 있는 관계로 기관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장명선 안녕하십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장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여야 간사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양평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평원은 양성평등 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양평원은 공무원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체계 고도화, 안전한 조직 및 공동체 역량 향상, 디지털 기반 교육 확대, 국내외 양성평등 협력 강화, 대국민 양성평등 문화 접근성 제고를 전략과제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및 정책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성인지 정책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해 현업적용도 높은 정책사례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직무현장 맞춤형

성인지 정책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폭력예방 교육의 품질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습자 중심 교과 기획 강화, 교수법 관련 교육 및 전문 콘텐츠 제공 등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를 체계화·다각화하고 최근 현장 사례를 적용한 교육과 상시 학습 콘텐츠 개발 및 환경 구축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실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상별로 특화된 사이버교육 및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대상별·주제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이용자 친화형 플랫폼 운영 고도화로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네트워킹을 위한 교류 지원, 국내외 양성평등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양성평등 콘텐츠를 개발하고 미디어 인식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 미디어환경 조성으로 양성평등 문화 진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양평원은 양성평등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평원이 양성평등 교육 및 진흥 전문기관으로서 제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단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들의 균형 잡힌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0년에 설립된 이래 정부의 청소년 정책을 기반으로 청소년활동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사회 변화에 따라 꼭 필요한 청소년활동 지원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학교 생활과 연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주도하고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활동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청소년활동의 접근성 및 효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지난 7월 개원한 국립청소년생태센터를 포함한 전국 7개의 청소년 시설에서 역사문화, 야외활동, 우주, 생명 해양, 환경 및 생태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한편 민간 청소년 시설에도 보급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활동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자격 획득을 위한 현장실습 이수 의무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자격연수, 보수교육, 전문연수를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의 적정 수준 확보를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수련시설의 시설관리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단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효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총괄 지원하며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도 위기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상담복지 서비스 강화, 청소년 상담복지 핵심인력 전문역량 강화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당면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가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 및 간단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님과 여성가족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국회의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 정책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 244개의 가족센터를 총괄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포용적 가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응을 위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사회적 재난 등의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가족안전망 구축을 선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가족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센터 종사자, 다문화 전문인력,



다양한 가족 전문강사 등 가족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심판청구소송, 인지소송, 압류, 추심 등의 법률구조 사업,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면접교섭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15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누적 양육비 이행금액 199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619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컨설팅을 했고 7만 7000여 명의 근로자에게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이돌봄중앙지원 센터를 위탁받아 서비스 제공기관 중앙관리와 교육, 컨설팅을 통해 공공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회 곳곳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적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년 9월 27일 독립된 법인으로 출범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특수법인 설립준비반을 발족하여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관 자체적으로도 기관분리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갈등이나 혼란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과 가족의 역량 강화를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단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24년 진흥원의 추진사업에 대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권 향상 중추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의 피해 촬영물 삭제 불응 관련 해외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저연령화 추세에 맞서 선제적 모니터링 및 온라인 그루밍 수사 협업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둘째, 5대 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광역 단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제폭력 등 복합피해 및 신종 범죄에 대한 현안대응 매뉴얼 개발을 통해 여성폭력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빈틈없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여성폭력 방지 및 현장 지원사업, 시설 종사자 교육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폭력 피해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본군위안부 문제 전시 및 유네스코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하고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과 여성 인권 담론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 및 인신매매 등 유관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상담전화 운영 및 사례판정위원회 개최, 종사자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정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통합적인 인신매매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라는 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자료 요청입니까?

○이연희 위원 자료 요청이 아니고, 실내가 너무 덥지 않아요?

○위원장 이인선 실내가 좀 덥지요? 방금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님들과 협의에 따라서 1차 질의는 5분, 2차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반갑습니다. 청주 흥덕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참 나쁜 대통령 만나서 우리 여가부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말씀 좀 가려 하세요. 나쁜 대통령이라니요?

○이연희 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차관님, 우리 대한민국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관련해서 심의도 제대로 받고 보고도 하고 관련된 권고사항 이행도 성실히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번 6월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권고안이 나왔는데 그 권고안을 모든 단위의 관련 국가기관에 다 배포를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대통령실에도 배포를 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대통령실은 저희가 배포를 하는 기관은 아니고 저희

가 회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모든 단위의 관련 국가기관인데 대통령실이 관련이 없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그 최종 권고안을 배포를 했냐 그 말씀이에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자료 드리고 결과 보고도 드렸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6월에 나온 유엔 여성 철폐위원회 제9차 정기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안에 대해서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관련 비서관실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대면 보고를 드리진 않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보고를 잘 드렸고 잘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번 권고안의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을 조속히 임명해라 그리고 여가부를 정상화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 내용도 보고를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결과 보고는 거기서 진행되었던 내용들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답변이 있었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보고를 드렸고 잘 이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연희 위원 차관님, 잠깐만요. 이행을 해요? 지금 장관이 계속 공석 중이잖아요. 뭘 이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여가부장관의 공석에 대해서 빨리 정상화하고 임명하라고 한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유엔 기구가 특정 나라의 특정 부처에 대해서 빨리 장관을 임명하라 이렇게 한 사례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의 기관이 한 나라의, 국가에 대해서 장관을 빨리 임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를 안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모든 사안을 다 대면 보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관련된 업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가 외국 기관에서 빨리 장관을 임명하고 정상화하라는 권고를 했는데 그것을 인사권자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보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대면 보고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해당 소관 비서관실에 저희가 회의에 참석했던 내용과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결과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서면 보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지금까지 없습니까? 없으니까

계속 장관이 임명이 안 되는 거겠지요? 그러면 지금 그런 정부의 태도는 결국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 권고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고에는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어떠한 조직개편에 의해서도 그 기능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잘 추진하라 하는데 권익증진국장 공석이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금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5개월 됐는데 이미 이런 권고안이 6월 달에 있었는데 장관 공석은 물론이고 주요 국장 자리도 계속해서 5개월째 공석되는 게 유엔 기구의 그런 권고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주요 국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관 공석에 대한 부분이 인사권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국장.....

○**이연희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선** 위원님, 본회의가 있어서 정해진 대로 한 바퀴 돌고 3분 질의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에 국민의힘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먼저 여가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가부가 아무래도 대상 중심 부서다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기능 중심인데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 규모도 크지 않고 대부분의 업무가 다른 부서들과 중첩돼서 그 기능을 찾아내는 데 조율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고 또 차관님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서 먼저 첫 번째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여가부 특성상 결국 타 부서와 협력 강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해바라기센터를 통해서 여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김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성범죄의 행태가 요즘 AI 기술 발달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AI를 이용한 정말 치명적인 이런 성범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보면 이런 신종 성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은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성범죄에 특화돼서 구성이 돼 있고 인력 구성이나 모든 면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재원 마련도 그렇고요.

결국 지금 AI로 인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이걸 아까 여성인권진흥원에서도 얘기를 했지마는 선제적인 삭제 또 해외공조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전문성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관

계부처 관련해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위원장이시고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 4월에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한…… 회의를 했고요. 각 관계자들의 의견을 다 담아서 계획 수립과 함께 지금 부처에서 집중적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 차단체계가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삭제 지원 시스템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까 국내외 공조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NCMEC이라고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 그런 기관과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협조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하여튼 수사라든가 처벌 이런 부분들은 타 부처하고 협력도 하지만 여가부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잘될 수 있고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사전에 그 부분들을 예방하고 나쁜 쪽으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좀 부탁을 드리자면 여가부가 대상 중심 부서이기는 하지만 성범죄 관련해서는 우리 여가부의 전문화된 기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해외공조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기관들과의 공조가 정말 중요한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차관님께 공조를 철저하게 해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피해 구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질문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 가족 개념이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가족이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가 지금은 행복 추구의 수단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이라는 개념도 바뀌어 가고 있고 결혼 자체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출산·양육보다 도리어 결혼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 이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바뀌어 가는 가족 개념, 바뀌어 가는 정서 지지, 누구와 정서 지지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가족의 기능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이렇게 변화하는 가족 개념 같이 고민하면서 기능을 찾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지금 되고 있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한 차관님 생각은 어떤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족 개념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결혼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저출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로서 변화하는 사회의 그러한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법이라든가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개념들이 워낙 다양하게 파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생각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합의해 나가면서 저희들도 필요한 의견이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기꺼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드리고 또 저희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가족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차관님, 질문하고 질의 합쳐서 5분으로 될 수 있으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굉장히 복잡한, 바쁜 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를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42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그런 부처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맞습니다.

○김남희 위원 차관님께서서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폐지되어도 좋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그 기능이 중요하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요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성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부처의 모양은 되어야 된다는 걸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셨거든요. 그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장관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답변과 같은 취지에서 동의를 하셨다고 보고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없이도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전에 이연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가 있었지요. 거기 유엔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가부의 역할과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전 최종 견해에서 퇴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임명의 실패, 여성가족부 관련 예산의 급격한 축소 및 여성 정책의 퇴행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 권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 철회하고 더 이상 지체 없이 장관을 임명하며 어떤 조직개편에도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자원을 대폭 증대하고 직원의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이렇게 권고를 내렸거든요.

차관님께서서는 이 권고에 대해서 이행하실 생각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CEDAW에서 저희한테 내렸던 권고 내용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지 철회 권고에 대한 그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능에 대한 것들을 잘 이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폐지가 돼도 좋다……

○김남희 위원 아니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폐지 조항 철회하라고 그러고 장관 임명하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권고를 했고요.

지금 여가부에서 제출하신 자료에도 여성차별철폐협약 최종 견해·권고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가부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차관님께서 장관 역할을 하느라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차관님이 장관대리로 참여하신 회의가 몇 건이십니까? 국무회의 포함해서 여러 건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맞습니다.

○**김남희 위원** 저희가 요청하니까 답변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몫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있어요. 매번 여가부장관 중심으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차관님도 참여하지 않으시고 기조실장님이 대리 참석하셨지요? 차관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스위스에서 열리는 CEDAW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때 임시국회 개회 중이었습니다. 임시국회 개회 중에는 장관과 차관의 역할들이 있고 또 저희가 긴급한 법안이 21대 마지막 대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랬고……

○**김남희 위원** 그때 여가위에서 법안소위 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법안소위가 잡혀 있지는 않았지만 유보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관이 없어서 차관이 한몫을 하다 보니까 회의 공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장차관이 참석해야 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공석이 난 사례가 없고, 그다음에 CEDAW 이 회의 관련해서는 다른 주제에 관련된 회의에서도 타 부처의 장차관이 반드시 참석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 국장이라든가……

○**김남희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장관님이 참석하셨던 거 맞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전에는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국제기구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 여성폭력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힘을 잃고 성폭력 관련된 정책·예산 이런 것들이 다 깎이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장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는 장관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금 장관님 안 계셔도 제가 공백 없이 소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차관님, 장관직무대행이시니까 차질 없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께서도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 김남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장관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사전 회의에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인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차관님 아시겠지만 교제폭력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단 한 차례도

줄지 않고 올해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대형 유튜버인 쓰양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렇게 큰 대형 유튜버마저도 교제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피해자가 된다는 심각성을 알려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런데 지난 6월 여가부에서 발표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주셨지만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이걸 좀 살펴보면 일단 기존에 있는 보호시설들,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취지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담겨 있지가 않아요. 이것을 존경하는 김한규 간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 일은 과거부터 계속 고질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통합대책을 발표 못 했어요. 그렇지요? 법무부하고 경찰청이 참여를 못 해서 늦어 가지고 여가부 단독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또 한 번 5월에 강남역 사건이 터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두세 달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통합대책 관련된 논의 과정도 없고 발표 계획도 없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교제폭력 사건이 여가부 혼자 핸들(handle)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김용만 위원 알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경찰청, 여가부 이 3개 부처가 공조가 잘돼야 됩니다.

6월 말에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여가부가 발표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3개 부처가 공조가 안 되고 대책 방안이 발표가 안 됐다라고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저희가 방안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공조를 많이 하면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월 말에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에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담, 긴급보호, 법률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2차 피해 방지……

○김용만 위원 차관님, 제가 지금 계속 기다렸어요, 좀 현실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열심히 노력 중이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하고 계시고 의원실에 확인을 해 봤는데 실질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가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법무부와 경찰청을 설득을 해서라도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동의하실 수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동의하고 우려하시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충실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체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게 고질적인 문제다 보니까 열심히 운영을 잘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 이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게끔, 통합대책이 좀 빨리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학생·청소년 교육을 빼고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좀 챙겨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돌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돌봄체계 구축하는 게 저출생 관련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데 계속해서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8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20년에는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때도 내용을 들어 보면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돌봄의 손길을 주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결국은 저희가 실무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봤어요. 들어 보니까 들어가는 경비를 합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퇴사자 수가 높은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이 손길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계속 퇴사를 하면서…… 방금 말씀 주신 업무보고 내용들은 좀 후차원적이어야 되고 처우 개선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동의합니다. 돌봄수당은 매년 인상해 왔는데 최근에도 교통비라든가 좀 인상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처우 개선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 아이돌봄비들 잘 업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관련해서 법안 준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가부도 도와주시고 여당 위원님들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선** 김용만 위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 때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김용만 위원님이 야당 위원님이시지만 아이돌봄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을 것 같아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 저출생 대책으로 때로는 양성평등 대책으로 아이돌봄에 정부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다 키워 주겠다, 사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큰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그런데 보면 교육부에서도 학령인구는 다 학교에서 늘봄으로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돌봄으로 여러 부처들의 아이돌봄 정책이 가득한데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워킹맘·워킹대디는 육아 때문에 울고 있다’ 이런 게 한 줄로 정리되는 젊은이들의 정서입니다.

차관님, 워킹맘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맞벌이 가구 비중……

○**이달희 위원** 예, 맞벌이하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작년엔 한 48%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런데 주로 육아를 하는 게 30대 맞벌이들인데요 30대 맞벌이들은

58.9%, 거의 한 60% 가까이가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는 보건이나 이런 게 강화가 돼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열만 나면 하원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자매나 형제가 있으면 한집의 아이들은 같이 하원을 시킵니다. 이럴 때는 직장에 나와 있는 워킹맘이나 워킹대디들은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데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돌보미 선생님들이 너무 적어서 장시간 대기한다고 합니다.

그 통계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평균 대기 일수가 20년에는 8.3일에서 23년 작년에는 33일로 거의 무려 한 달 동안 대기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매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도 아이돌보미 선생님 부족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취소하고 또 재신청하고 이런 반복현상의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복지부·고용노동부가 다 하는 일 이외에 이런 틈새에서 정말 아이돌봄이 필요한 현장에서 젊은 워킹맘 그리고 워킹대디들이 필요한 이 순간순간을 책임지면 그 존재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요자 문제는 원하시는 수요보다 공급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미스 매칭이 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돌보미 유입 확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을 해서 아이돌보미 일 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돌봄의 사각지대 가정에서 맞춤형으로 일대일로 돌봄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로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제도를 잘 보완해서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달희 위원** 확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돌보미 부족에…… 돌보미 선생님들은 어떻게 돌보미가 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이달희 위원** 교육을 받으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이달희 위원** 어디 가서?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한 곳이 있거든요, 가족센터.

**○이달희 위원** 몇 시간 교육을 받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140시간입니다.

**○이달희 위원** 140시간 교육받으면 누구나 돌보미가……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연령 제한은 현재 없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니까 이 체계를, 이런 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하려면 국가자격제도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복지 전문직 중에 육아 돌보미 선생님들도 자격증을 만들어 주고 확실하게 그 자격증에 대한 처우도 해 주고 그래야 이 직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고 공급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까 140시간이었는데 120시간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촌촌한 돌봄 될 수 있도록 장관직무대행께서는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입니다.

저도 계속되는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석이 지금 163일째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이 없는데 차관님, 부처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공백 없이 소관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국제사회마저 지금 여성가족부장관 임명되지 않은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난 6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임명 실패, 여성가족부 관련 예산 축소, 여성 정책의 퇴행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가부 업무 특성상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장관이 부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대통령 공약 이행하려고 장관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폐지하자니 여성들이 반발할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운영하자니 공약 지킬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장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통령 지시사항 목록을 살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임기 초기인 2022년 7월 25일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성 마련’ 이 지시 이후로 한 번도, 단 한 건도 지시사항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교육부에는 2024년에만 20건에 가까운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갔습니다.

면벽 근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회사가 명예퇴직 거부했던 사무직 직원에게 업무시간 내내 벽만 바라보게 했던 갑질이자 괴롭힘 사건이지요. 여성가족부 직원분들, 자신의 손으로 부처 폐기하라고, 그 방안 마련하라고 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직원에게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면벽 근무, 갑질, 괴롭힘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예산편성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니 거의 모든 여성정책 사업

예산 감액되었습니다. 장관도 임명하지 않고 예산도 줄이고 직원분들이나 차관님 정말 일할 맛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제 기능 하지 못하도록 고사시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이렇게 여성 차별적이고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하루빨리 장관 임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CEDAW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의 장관 공석이라든가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 당시 여성부를 만든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될 일이고 또 굉장히 많은 공헌과 우리나라 제도개선에 기여했다라고 봅니다.

○**백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미디어 이용 습관 25일에 여가부가 진단조사한 것 발표하셨는데요 그것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3개 학년 청소년 총 124만 9317명에게 조사를 했을 때 일상생활에 지장받는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이 총 22만 1029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유아·청소년들은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미디어환경 속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무법천지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단조사도 실태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위험군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 치유하기 위한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과가 한 해에 23만 명, 22만 명이나 과의존 청소년이 나오는데 이 청소년들 다 상담이나 지원 받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과의존 조사가 나온 부모들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부모 동의율이 18%밖에 안 됩니다. 이 조사 결과가 학생부에 남거나 어디 기록에 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렇지 않습니다.

○**백승아 위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부모 동의가 너무 낮아요. 그런데 여가부가 고민한 대책이나 개선 방안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 동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모바일하고 학교에서 안내문이 가 가지고 이런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이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부모가 동의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지금 과의존 청소년 선별하고 지원하고 치료하는 데 여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래 희망인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걸 감춰야 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개입을 해야 되는데요. 진단조사 지역별 통계를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하니까 여가부에서 거절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시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이게 지자체에서 일일이, 어쩌어떠한 인원들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으셔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셔서 그렇게 저희가 무기명으로 제출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이걸 숨겨야 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하고 지원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때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대행님,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장관의 공백을 두고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 우려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 공백이 되니까 소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또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저는 대행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료 위원들의 우려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루빨리 장관이 임명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 기능과 업무가 제대로 또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행님, 저는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한계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문제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PPT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여가부 국정감사 당시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여가부장관이셨던 이정옥 당시 장관의 답변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 오류 문제를 질문하니 ‘관리는 경찰, 등록 책임은 법무부다. 여가부는 부처 통제 권한이 없다’,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차원에서 범죄경력 조회 필요성을 지적하니 ‘돌보미 인권 고려해야 한다. 조회의 빈도는 경찰과 협의해 봐야 한다. 권한이 없다. 힘이 없다’ 이런 답변만 반복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PPT 화면 두 번째 것 좀 띄워 주세요.

여가부와 타 부처 간의 업무 분절 문제도 고질적으로 반복돼 왔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 여가부와 국토부의 여성안심앱 업무협약 건 홍보 내용을 보고 진행 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정옥 장관은 서명에 참여해 협약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유받거나 확인한 내용이 없었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협약이 적용·시행 중인 지자체 현황 자료만 겨우 제출받았습니다.

이처럼 여가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한계, 타 부처와의 업무 분절 문제는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대상의 정부 정책 기능과 업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저희들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여가부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정부가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데에 CEDAW 건의의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대행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대행님께서 22대 국회에서 여가부 조직개편에 어떤 안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21대에서는……

○**조은희 위원** 21대 말고 22대. 제가 말씀드리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현재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부조직……

○**조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대응기획부 이런 안이 나와 있고요. 민주당에서 인구위기대응부,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이런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안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 당에서도 내고 민주당에서도 냈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1대 때부터 행안부장관, 여가부장관에게 정부 조직개편안에 여가부 개편안과 더불어 양성평등위원회의 내실화를 주문했는데요. 첫째, 인구가족과 양성평등 문제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진해야 될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행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동의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서 독일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같은 신설 조직개편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독일은요 1991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1분만 더 쓰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아니요, 그래도 우리 정한 대로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고 일단 5분 질의부터 달려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30초만 더 주십시오. 이게 중간에 말이 끝나서……

○**위원장 이인선** 그러면 흐트러져서 안 되고 그냥……

○**김한규 위원** 마이크 없이 그냥 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그러면 마이크 없이 할게요.

독일에는 장관 1명에 차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양성평등 업무를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하고 있고 사실상 이게 부총리급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구부처 신설안이 한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양성평등위원회의 내실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산하의 양평위가 저는 대통령 소속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평위가 2015년 발족된 이후로 9년간 열두 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중에 69%, 70%가 서면회의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내실

화가 되지 않고 여성의 경력단절 등의 정책과제에도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하니깐 앞으로  
도……

○위원장 이인선 조은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은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 개편도 그냥 여가부가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알짚었으시군요.

○위원장 이인선 예, 양당 간사가 협의해 왔기 때문에 알짚었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광주 북구율의 전진숙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여가부가 없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차관님께서 기능이 유지된다면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한 말씀은 대단히 유  
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1년에 여성부가 만들어지면서 왜 여성부를 독립부서로 만들었  
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1년 한국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7월 30일이었지요—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요즘에도 인신매매가 있나?’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국내 인신매매 실태를 파악해 보니 여전히 이걸 대처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필리핀에서 공연을 하려고 왔던 여성들이 인신매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약  
이 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최근 수법이 더욱더 교활해져서 들어오면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인신매매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고요. 오히려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2023년 인신매매 범죄가 808건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전진숙 위원 지금 인신매매 피해 가능성이 있는 식별지표를 사용을 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전진숙 위원 그래서 이 식별지표가 사용된 대상자는 1432명으로 23년 3월부터 12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숫자는 55명입니다. 그  
런데 여가부로부터 제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받은 피해자가 몇 명인가라고 하는  
확인서 통계를 받았는데 11명에 불과합니다.

이 확인서를 받게 되면 신변보호, 법률상담, 취학지원, 취업지원, 생계지원, 귀국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고 지원·보  
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조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까 말씀하신 잠재적 피해자로 발굴된 55명은 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불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지원 신청 필요성이 적었던 부분인데 혹시 피해 보호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이 피해 지원이라고 하는 게 더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신매매 보호법에 의하면 지역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을 각 시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맞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 하나도 설치된 데가 없고요. 심지어 2023년 예산 2억 2500만 원 전용·불용하면서, 오히려 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어야 되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한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미온적이어서 설치를 못 했던 부분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신매매라는 게 굉장히……

○**전진숙 위원** 좀 짧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어려운 업무거든요. 성매매, 성착취, 노동착취 등도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독려를 많이 했었지만 신청은 못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성폭력 행위와 관련한 불법 촬영물 비용 부담을 전체 여가부가 하고 있고 삭제 지원을 100만 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지금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전진숙 위원** 그런데 구상권은 0건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짧게 말씀을 좀 주시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깐. 말씀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전진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한 총 건수가 2018년에 3만 4000건 그다음에 2023년에 28만 건입니다. 8배 이상 증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의 개별적 공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출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먼저 북한이탈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좀 보여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 11월에 ‘폭력피해 북한이탈 여성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이런 것 한 적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김남근 위원 거기에 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북한이탈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어요. 한 22.9%인데 지금 우리 북한이탈 여성들이 한 2만 3000명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피해의 가해자들을 분석을 해 보게 되면 특히 직장 관련 사람들이 많고 정착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가해자인 경우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 걸 보면 북한이탈 여성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직장도 그렇고 정착 지원도—그런 어떤 의존해야 되는 권력적으로 의존 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특히 직장 정착을 지원하는 부서라든가 정착 지원을 하는 부서라든가 또 하나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어떤 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하나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여성가족부가 개입을 해 가지고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폭력 관련 의무교육에 대한 콘텐츠하고 강사 전달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원에 가서 교육할 때 여성가족부가 관장을 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을?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저희가 찾아가는 폭력예방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원이 그 특화교육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하나원에 있는 거기 직원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북한이탈 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성폭력 피해나 이런 거 예방에 대한 교육, 피해를 당했을 때 여성가족부의 어떤 부서로 신고를 하라든가 여성가족부하고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걸 만드냐고요, 북한이탈 여성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북한이탈 주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만드냐는, 그분들이 어려울 때는 여성가족부 쪽에다가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나 연락처나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북한이탈 여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그런 행정을 하냐고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금 심리센터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 촘촘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여성가족부 자체의 행정도 있지만 다른 부서가 여성가족부가 관장해야 될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장관이 없으니까 차관이 하니 사태 파악도 잘 안 되고, 장관이 없으니까 통일부라든가 하나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협업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부 일의 50% 이상은 다른 부서들이 여성보호 문제라든가 청소년보호 문제라든가 아동보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는지를 점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도 없는 부서에서, 가뜩이나 왜소하다고 그렇게 약간은 천대받는 그런 부서에서 제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차관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잘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원에 가서 교육도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고 북한이탈 여성에 대해서 연락처라든가 수시로 점검한다든가 그런 것도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예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제,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대부분 집에서 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가정불화 이런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거지원이 필요한데 아까 주요 보고에 보니까 LH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퇴소 청소년들에게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장관이 없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퇴소 청소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들에 비해서 절반 밖에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열악한 주거나 무슨 고시원 이런 데 가서 생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공공임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LH나 아니면 국토부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장관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예 협업도 안 되고 지금 차관은 파악도 못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런 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차관께서 뭐 장관이 임명되면 제일 좋고…… 적극적으로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아 위원** 차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가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모두 다 인식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가부 자체가 대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율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장관께서 임명되는 경우 굉장히 중요할 것을 아마 차관님도 그렇고 모두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님께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물론 더 효율적인 조율이 되겠지만 여가부가 동등한 수평적인 위치에서 그런 조율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갖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고민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3년 만에 우리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내국인은 2021년부터 저출생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줄어 들고 있는데 외국인이 메워서 그 총인구 수를 늘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급박하게 빠르게 달려 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이주배경 주민들을 우리가 품고 더 효과적인 정책들을 당연히 펼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민이 대부분 단식으로 생활했다면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가족들과 같이 오고 있고 다문화가구도 지난해 4.1%, 5년 새에 24.1%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러한 정책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2021년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자녀 중 국내에서만 성장한 자녀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차관님?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현재 다문화 자녀 수는 22년 기준 19만 명이고요.

○한지아 위원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성장한 자녀의 비율이 90%에 다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민자·귀화자 국내 거주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학령기 자녀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그냥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멀리 가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인 자녀들을 잘 키워 내야 되는데 이주배경 학부모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한다라든가……

○한지아 위원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부모와의 소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한지아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려워하고 있고 5세 이하는 한국 언어지도고 6세 이상은 학습지도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에 가면 갈수록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전체 국민과 31%나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분들은 우리와 같이 가야 될 미래 세대인데 이렇게까지 고등교육기관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정책들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에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혹시 그것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관님?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성장 단계별로 저희가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초학습하고 진로설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레인보우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역 격차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질 평가보다는 양적 평가에 머무르는 부분들이

있다고 확인되고 있고, 지원의 혜택도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넓히고 있지만 그게 다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아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중도입국 청소년 공교육에 있어서는 외국 국적 부모들에 대해서는 취학연령 아동에 대한 취학통지서 전달체계가 미비해서 공교육 진입 접근성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학 이후에도 학습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 부족으로 공교육 이탈이 되고 있어서 취학통지 전달체계 개선, 통합 공교육 접근성 제고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교육부와 잘 상의해 주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다문화 한부모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세분화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올해 2024년도 다문화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항·항목에 사별이나 이혼으로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들에 대한 질문들을 제대로 포함시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의 검수를 받으시기 전에 문항 영역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서면 보고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가부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전체적으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농촌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이웃에 늘 다문화가정을 옆에 두고 있었고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정책의 현주소를 저의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여가부에 와서 여가부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 대상을 보면 일단 학교 밖 청소년, 그렇지요? 그다음에 다문화 청소년 그다음에 탈북 청소년 그다음에 중도입국 청소년. 이 중에서 탈북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을 통틀어서 보면 우리가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해서 아마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북한이탈 청소년은 통일부 그다음에 중도입국 청소년은 법무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행안부, 각 부처에 통계자료가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여가부에서는 정책 대상자를 놓고서 정책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 그 정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그들의 욕구나 그들의 처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을 좀 갖게 됐습니다.

특히 탈북 청소년의 경우 갈수록 숫자가 늘고 있는데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는 합

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들이 각 부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대상만을 지금……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것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교육 정책이 잘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그들의 부모가 누구이든 국적이 어떻든 등록이 되어 있는 되어 있지 않은 간에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으면 학교는 받아 줍니다.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이들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학교가 그것을 받아서 교육을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국적이 어떻게, 무국적 상태인지 무등록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학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측면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현실적으로 교육에 적응하는,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그리고 부진 언어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관습이나 법질서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전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하신 대로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통계를 저희가 산출하지 않고 있어서 우려하신 부분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 할 때 고려하고 만약에 타 부처의 이런 통계자료 문항을 연결……

○임미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부 제4차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현황 분석 위해서 청소년 종합통계 구축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혹시 내년에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인선 위원장, 서범수 간사와 사회교대)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사회관계 부처들을 통합해 가지고 그런 통계들을 산출하고 연계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임미애 위원 여가부에서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딱지가 붙여져 있다 보니 자기 처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것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을 하시고 정책 통계자료도 확보를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그쪽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에 말씀하신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잘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범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여가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어저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하셨는데 청문회 때

후보자 발언 중에 사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놀란 발언들이 엄청나게 많기는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는 여가부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 관련된 발언 중에 논쟁적 사안, 개인적 사건, 개별적 사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사실 여가부가 이 관련된 법도 있고 관련된 사업도 하니까 차관님께서 방통위원장 아니면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의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에 대한 역사의식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안부 피해자법은 일제의 강제로 이분들이 동원돼서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철민 위원** 그래서 개별적 사안이나 개인적 사안은 아닌 거지요? 완전히 잘못된 발언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여가부에서는 위안부 문제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장철민 위원** 아니, 여가부가 어떻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법도 그렇고 지금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사회가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노력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아주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그 법을 정말 제대로 시행하시는 거고 차관님도 제대로 역할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것에 입 닫으시면 그게 역할을 하시는 걸까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안부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식 제고하고 다시……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완전히 잘못된 발언이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제가 후보자 한 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

○**장철민 위원** 후보자 한 명의 발언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여성가족부는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장철민 위원**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과 위안부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국민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의무가 지금 차관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바로잡아 주시지요. 많은 국민들 보고 계세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이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이 지금 정확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발언 잘못됐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금 말씀드린 법에……

○**장철민 위원**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위안부 어르신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여가부가 앞장서서 입장 내고 교육하고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겠다 이 얘기가 너무나 정상적인 역할 아니십니까? 어려우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안부 피해자법에 의해서 저희 여성가족부의 그 역

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서 차관님의 역할이 지금 그것 정정하시고……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것 잘못을 잘못이라고 확인하시는 일이 바로 얘기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의 취지를 정확하게 차관님께서 실행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후보자 한 개인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비판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철민 위원 왜 적절치 않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리고 여가부의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철민 위원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 적절치 않지요? 고위 공직자가 하면 적절하지 않은 건가요? 장관급 공직자가 이야기하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데, 너무나 명백한.

조금 다른 얘기 좀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임명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면서 저는 대통령의 직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법 122조, 명백한 직무유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관 공석 사태가 사실 공석 그 자체로만 보면 일부 어느 정도 기간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인 방임, 직무 권한에 대한 포기를 하고 계신 건 대통령이 명백하게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공석에 따라서 임명권자의 권한에 대해서 제가 뭐……

○장철민 위원 권한이라고 하는 건 직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석이 일부는 있을 수 있다니까요. 20일, 30일 일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인사권 그 권한 앞에 있는 인사와 관련된 직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기하고 해태하고 방임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방임하고 포기하는 행위는 사실은 형법상 범죄거든요. 공수처 수사 사항이요 사실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방임 그렇게 생각……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여가위 차원에서도……

○위원장대리 서범수 장철민 위원님 시간 좀 지켜 주세요.

○장철민 위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한 대통령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정말로 나중에 탄핵 사유에 대한 구성요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여가위 차원에서도 오해가 되지 않게……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범수 예, 알겠습니다.

시간 좀 지켜 주세요,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범수 의사진행발언,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성가족부장관 대행에게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해서 현안질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소통관에서 할…… 야당이 야당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소통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대행을 두고 정쟁성 발언을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제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을 좀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서범수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의사진행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범수 말씀하세요.

○김한규 위원 장철민 위원 질의는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업무에 관해서 입장을 물어봤고 여가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가부 장관직무대행이 일부 공직후보자의 입장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장철민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질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간사, 이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정도 질의도 못 하면 상임위에서 어떻게 정부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을 하겠습니까.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정도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범수 위원 저도 의사진행……

○위원장 이인선 예, 양당 간사라서. 짧게요.

○서범수 위원 사실은 오늘 회의가 참 괜찮았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여가위 처음 상임위 회의를 하면서 정말 정책적인 걸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참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노파심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부분을 계속 이런 기조로 가면 좋겠다, 우리가 굳이 감정선을 건드리면서 논쟁할 필요가 없다, 이 귀한 시간에 정말로 여가부가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하고 또 대안도 마련하는 시간이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조금 불편하고 서로 감정선을 건드리 가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질의 때 하면 안 될까요?

○백승아 위원 의사 진행에 관한……

○위원장 이인선 의사진행발언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백승아 위원 여가부차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당연히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가부 현안질의에서 이 정도도 못 물어보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감정선을 건드리지 말자고 하셨는데 여기는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좋은 감정을 교류하기 위해서 만난 곳이 아닙니다. 왜 그게 감정선이 건드려지는지가 의문이고요. 정당하게 물어볼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게 왜 감정선이 건드려지는 건지 모르겠고 저희는 여기에 감정 교류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조은희 위원님께서 질의, 발언시간 끝났지만 30초 달라고 하셔서 진행하셨을 때 저희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으셨는데 장철민 위원님이 시간 지나니까 시간 지켜 달라고 서범수 간사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이 안 주셨어요. 알뜰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마이크를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백승아 위원 서로 공정하게 했으면 하는, 공정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제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알뜰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서영교 위원 발언하고 하세요.

○위원장 이인선 백승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30초만……

○위원장 이인선 의사진행발언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당 간사가 오전 중에 하기로, 우리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좀 달려가 봅시다.

다음은 김선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차관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의 제1조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발언하는 것이 감정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라면 지켜야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의무 아닙니까, 차관님?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맞습니다. 아까……

○김선민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일본군위안부가 자발적 모집에 근거했다고 발언한다면 차관님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선민 위원 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제가 만약에 그것이 논쟁적 사안이라고 발언한다면 그것 역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이 부분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로 규명된 사안입니다.

○김선민 위원 명백하지요. 일본군위안부가 강제동원이었습니까, 자발적 모집이었습니까? 윤석열 정부하의 여가부차관님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안부 피해자가 강제동원이라는

부분은 법적·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김선민 위원**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명백한 사실임이 맞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다만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 소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제가 후보자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신중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후보자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후보자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저 개인의 일입니까, 아니면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의 일입니까? 이진숙 씨의 이 답변으로 온 언론이 도배되고 있는데 정작 담당 부처인 여가부는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차관님, 대통령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어떤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민 위원** 대면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올해는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습시다.

○**김선민 위원** 작년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작년에는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23년 1월 9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가부는 19개월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한 번 하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 아무리 직무대행이라 하더라도 부처의 수장으로서 대단히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성가족부가 챙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차관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지난 5월 여자친구를 살해한 강남 빌딩 옥상 살인사건을 비롯해서 다수의 교제폭력 사건들로 수많은 여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교제폭력 신고는 2017년 1만 4136건에서 23년 7만 790건으로 5년 사이에 4배로 폭증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이별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정녕 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 먹방 유튜버 쓰양 씨가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과 사이버 렉카의 공갈 협박 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교제폭력 등에 대한 책임을 가진 주무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중요 업무 가운데 청소년 정책도 있습니다. 최근에 도박, 마약이 청소년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여성가족부는 여가부장관이 사라진 이후에 여가부의 브리핑은 사라졌습니다. 장관의 공백이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여성가족부차관에 대한 오명을, 있으나 마나 한 여가부로서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러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선민 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선** 차관님, 나중에 꼭 보고드리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진숙 후보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이제 여덟 분 계시기 때문에 잘 지원하고 잘 모시겠다라고 했고 여가부장관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역사적으로 강제동원되었던 일본의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유명한 이진숙도 강제인가 자발인가를 물었더니 논쟁적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비난을 받고 논쟁적 사안이라고 하는 말은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호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발언 한 것을.

역사적인 것만큼은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 여가위는 여가위에서 하는 역사적인 것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안은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 국힘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조운선 장관이 여가부장관으로 오면 저희가, 여성들은 뽕뽕 뭉쳐서 그 법안을 통과시켜 냈어요. 제가 오늘 이름도 얘기할 수 있는데 국힘당의 권성동 의원 같은 분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여가부장관 조운선 장관을 불러다가 오히려 야단을 많이 치면 우리가 그것 보호해서 여가부 법안 통과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만큼은 저희가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진숙은 논쟁적 사안이다라고 했다가 그거 취소했고요. 그런데 개별적 사안이라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망발을 해서 지금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한번 드립니다.

제가 여가위에 온 것 중의 하나는 그겁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우리 소녀상 곳곳에 테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위협이 가해지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에 김상희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개정안을 여가위에서 서로 합의하고 논의해서 통과시켜서 한일 문제의 역사적인 피해·침해만큼은 뽕뽕 뭉쳐서 법 개정을 통해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개정을 위해 여가부차관께서 노력해 주셔야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까 이야기하셨어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요. 부모가 떠났어요. 아이를 한부모가 키우는데 한부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러 가면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으면서 욕설을 퍼부어요. 아이들이 가면 아이들을 해코지해요. 그래서 이대로 그 가정에 맡길 수는 없다, 이거 국가가 나서서 정리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국회의원이 돼서 양육비는 안 주면 나라가 먼저 줍시다. 왜? 아이들이 최소 교육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양육의 기본 권리에요. 나라가 주고 주지 않는 부모에게 나라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예산을 메웁시다라고 법안을 냈었고 그때 이행강제원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여가부차관도 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여야가 다 같이 해 봅시다. 선지급하고 나라가 구상권 청구해서 새는 예산 없이 채워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쓰양 사건과 관련해서 여가부에 이것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와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제삼자에 의해서 민원이……

○서영교 위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법무부하고 어디입니까, 법무부하고 두 군데만, 경찰청입니까? 협의를 했고 여가위가 그 협의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서영교 위원 교제폭력 대책 관련해서 법무부하고 경찰청만 협의하고 우리 여가부가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당정 현안보고 관련해서 여가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교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쓰양 교제 이 관련이 아니고요……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과 법무부, 당정 관련해서네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것은 저희 부 소관사항이 아니었던 업무에 대한 당정 협의 때문에……

○서영교 위원 교제폭력과 관련한 대책인데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서울대 N번방 사건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저희가 같이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법무부·경찰청의 회의를 할 때 같이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꼭 하시고요.

제가 출생통보제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 낳을 때 익명으로 낳아. 싫으면 아기 놓고 가’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향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익명으로 해 줄게. 낳는 산모도 보호해야 하는데 아기도 보호해야 해요. 그리고 산모가 초기에는 자기결정권도 가져야 해요.

그런데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에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느라고 만든 아주 졸속적인 입법이에요. 아이들이 버려지고 장애아가 부모를 못 찾고 부모와 아이의 인연을 끊는 아주 잘못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향후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시민단체가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들어 보시고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잘 알겠습니다. 보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차관님, 여성가족부에 오신 게 언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23년 12월 이십……

○김한규 위원 작년 12월에 오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12월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전에는 인사혁신처에서 근무를 하셨고 장관직무대행 한 6개월 정도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올해 대통령에게는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올해 여가부 업무 서면보고 자료인데요. 제가 한 자도 빠지지 않고 다 봤는데 좀 이상했어요. 꼭 봤던 문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2023년 업무보고 자료랑 비교를 해 봤는데, 좌우가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이게 비슷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반복됩니다. 한 47개 항목 정도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맨 밑에 보면 작년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이번에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비슷하고, 여기에는 제가 일부만 표시를 했고 일일이 세어 보니까 한 47개 항목 정도 됩니다. 물론 부처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갑자기 1년 만에 현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해서 각 부처에 연간 보고자료 받아보는데 이렇게 비슷한 경우들은 없어요.

이유가 뭘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지요. 하나는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그대로 더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아니면 새롭게 일을 할 동력이 없는 거겠지요. 여가부가 부처가 작지요,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으면 더 기민하게 정책 수립하고 어젠다 발굴하고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김현숙 전 장관이 업무의 상당 부분은 조직개편에,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한 조직개편에 신경을 쓰셨고 또 한동안은 잼버리 사태 때문에 이거 수습하느라 고생하셨고, 작년 9월에 사표를 내셨으니까 실제로 퇴임은 1월에 했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장관이 없는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관이 열심히 하시더라도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 서로 아는 얘기니까 그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차관님이 올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률 개정 두 가지,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봄 지원법하고 양육비 대지급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개별적으로 와서도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이것은 지금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양육비 대지급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에 있지요,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진흥원 이사장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작년 6월 이후였다고……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이 중요한 두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이 작년 6월부터 공석입니다.

이사장 누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장관입니다.

○**김한규 위원** 왜 임명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작년에 이사장 퇴임 후에 저희가 일단 책임자를 추천받고자 공모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한 분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가부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과제를 담당하는 진흥원 이사장이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믿고 그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인물을 찾습니까? 퇴임하기 전에 미리 후보자를 찾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성가족부 명단을 봤더니 차관님 인사혁신처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권익증진국장 공석입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 공석입니다. 차관님 인사혁신처 출신인데 이렇게 한 부처의 장관 그다음 산하기관장, 본부 국장 그리고 차관과 실장이 다 외부 기관에서 오는 이런 식의 인력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이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한규 위원** 이례적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이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니까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 그냥 본인이 열심히 해서 해결하실 거예요? 계획을 물어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여가부의 내부 사정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잼버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라든가 대응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조직 운영을 하기…… 또 원활한 조직 운영을 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은 인사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석인 부분들은 저도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5분 질의 마지막입니다.

다음에는 서범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차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차관님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실·국장님들 좀 억울하시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장관이 안 계셔 가지고 장관이 없는 공백을 메우려고 더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형적으로 나타난 건 장관이 없으니 ‘너희 업무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안 챙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신의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우려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제가 차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저희 직원들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더욱더 분발하셔서 여가부면 여가부답게 여성·가족·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목소리도 좀 내 주셔야 된다, 나름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제가 느끼는 게 보니까 여가부가 너무 위축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지금 못 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요.

특히 서영교 위원님이나 장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통위원장 위안부 관련해서 발

언한 부분은 여가부에서 진위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진위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여가부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저런, 구태여 우리 여가부에서 그걸 커버를 할 필요가 없지요. 여가부는 여가부답게 업무 수행을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만 받은 게 아니고 잘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여가부에서 이런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부분들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차관님께서.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법률 개정해서 많은 제도적인 성과를 보였던 부분들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젠더기반 폭력 해소 관련해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이라든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그다음에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여성폭력 방지 정책 이런 계획들을……

○**서범수 위원**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가부의 존재 이유라든지 존재 가치가 항상 흔들린다.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국민들한테 여가부가 있다,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합니दार는 걸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활동도 해 주셔야 된다.

차관님은 장관직대지요, 지금? 대행이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뒤에서 실·국장님 힘을 받쳐 가지고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제가 가정 밖 청소년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실태 파악합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것?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가정 밖 청소년 규모는 저희가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실종·가출 통계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관련한……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 경찰청 실종·가출 통계가 거의 맞다고 보십니까? 보통 보면 가정 밖 청소년 중 52%가 부모님과의 문제로 집을 나온다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금방 말하는 경찰청 통계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신고를 하셔야 이걸 파악을 한다고. 그런데 부모님 때문에 나왔는데 과연 부모들께서 실종신고, 가출신고를 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되겠어요?

그리고 밖에 나온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에 입소를 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차관님? 그런데 이게 맞아요? 52%가 지금 부모님하고 문제가 생겨서 나왔는데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규정 자체가 가정 밖 청소년이 더 쉼터도 못 가고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질의는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정회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차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많이 위축돼 있다고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성가족부가 다른 행정부처에서 하고 있는 여성보호 정책이나 청소년·아동 보호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안 내 주시면 여성가족부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나 아동·청소년들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더 분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청소년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복지시설을 나오게 되는 자립준비 청소년이라고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쉼터를 나와서 자립해야 되는 청년들이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소년보호시설을 나와서 자립해야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 분석을 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자립지원 정책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남근 위원 수당도 그렇고, 일단은 그러면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자립해야 되는 청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립지원 정책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지원 단가라든가 대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런 자립 정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법무부 소년보호시설을 나오게 되는 청년들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법무부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재범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그런 정책만을 주로 하고 있는데 소년보호시설을 나오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좀 더 살펴보고 청소년쉼터 퇴소하는 그런 청년들에 대한 자립 정책과 마찬가지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 같은 걸 마련해야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장관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부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런 정책 하셔야지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나오는 자립해야 될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를 나오게 되는 그 청년들에 있어서의 자립지원 정책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시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 사이에서 대학 진학률도 그렇고 직업을 얻는 것도 있고 빚도 그렇고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서로 좁혀 보려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자립준비 청년과의 지원 격차라든가 처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 아무래도 예산 이런 격차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 차이가 없도록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나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LH의 공공임대 확보하는 것 쉼터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반드시 과약을 하셔서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여가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양육비 선지급 후에 구상권 행사하는 사업에 관해서 올해 가시적 성과를 내서 한부모가정이나 양육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많이 추진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니깐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여성가족부가 조직이나 아니면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뿐만 아니라 변해 가는 가족 개념과 또 변해 가는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요.

여가부 업무 상당 부분이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역구로 있는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를 출생할 때에 당장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 가기가 어렵고요 또 출생 후에 산후조리원을 제대로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 산후조리원이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 업무의 시작점이 아이의 출생과 산후조리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울산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대형 산부인과 병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서 울산 안에서 제대로 된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울 지경 아니면 아주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중소 도시는 그런 어려움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산부인과 관리나 또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산후조리원도 경우에 따라 우리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적 산후조리원이다 인증도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이런 관련된 연구와…… 물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출산·양육이 특히 지방도시에서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이 있으면 말씀부터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까 말씀하신 병원이라든가 산후조리원 관련된 출산·보육 정책은 일단 주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저출생 관련된 관계부처 협의회를 긴밀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안에서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내년 주요 업무 보고에는 이 부분이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김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맞춰 주셨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청주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아까 차관께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나 보고, 권고 이행을 성실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제출된, 발표된 최종 권고안에 후속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4개 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제31 (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보세요, 31 (a).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31 (a)……

○**이연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하여—31 (a)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행하라고—‘피해자/생존자의 구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 만족, 공식 사죄 및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제공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이행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공식 사죄라 함은 일본 정부의 사죄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성부에서 지금 이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계 정부기관이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나 이런 것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다 전달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를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부분은 외교부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외교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달을 잘 하였습니다.

○**이연희 위원** 전달했어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이연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안에 우리 정부에 여성부장관을 빨리 임명해라, 정상화해라 그리고 위안부 관련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관께서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을 대면해서 관련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구요.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가부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폐지된 사업 리스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성인권 교육을 추진하는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토막 났고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도 거의 3분의 1토막 났습니다.

이렇게 여성가족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폐지되는 이유가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으로 이런 주요 사업들을 다 폐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예산의 재구조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외에도 범죄 유형의 복합화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해자 위주의 그런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한 예산의 재구조화 작업 중의 일환이었고 이걸 폐지 이슈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선** 장관 권한대행님,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또 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위원님께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아까 신상발언 시간을…… 위원님들이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순서를 많이 바꿨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 차관님, 앞서서 제가 교제폭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지금 차관님 차원에서 여가부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지적 수준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준비가 된 게 있다면 전달을 주시고 없다면 수립을 하셔서 가지고 의원실로 부탁드립니다 말을 놓쳐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드릴게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김용만 위원** 일단 차관님께서 이진숙—지금 방통위원장이지요—위원장의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시고 강제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은 확인이 된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저는 그 부분에……

○**김용만 위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업무보고를 주실 때 내용을 보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명예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보면 아직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역사 가치 훼손, 명예훼손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극우단체도 그렇고 수요집회 때도 그렇고 욕일기 들고 나와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명예회복을

논하는 게 과연 순서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훼손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지 않고 훼손된 명예를 다시 드높여 드리는 일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 명예훼손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여가부장 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직접 하시고 법 개정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대응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도 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여가부에서는 그런 보호조치, 훼손을 방지하는 조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역사적인 사실 왜곡 그다음에 피해자 명예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해 주신다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아마도 지금까지 여가부가 그런 부분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께서도 여가부의 의견이 어떠냐라는 걸 질문을 하시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용역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거든요.

해서 앞으로 명예회복이 아닌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예산안까지 어떤 수준에서 보호를 해 드릴 건지에 대해서 의원실로 아까 말씀드린 교제폭력 내용과 같이 좀 보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조금 전에 신상발언 시간도 못 드렸는데 시간을 잘 안내해서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오늘 이렇게 앉아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장관 안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임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 봤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국민의 뜻이다. 받아라’ 이러는데 우리 여가부 폐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공약을 해서. 그렇지요? 지금 제가 여가부 폐지 주장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생각을 좀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입니다, 계층별·세대별. 그런데 이제 남녀의 양극화까지 불거져서 젠더 갈등이 심화돼서…… 그러면 여성들은 불평등하다고 합니다, 74.6%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그러면 남성의 한 25%가 불평등하다 해야 되는데 남성의 51.7%가 우리 사회가 지금 남성에게 불평등하다. 이런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여성 자가 붙어 있으니까 젊은 남성 친구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

겠구나. 여가부 폐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걸 고백합니다.

차관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영어 이름이 뭘니까? 영어로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젠더 이퀄리티 앤드 패밀리(Gender Equality and Family)라고 합니다. 이렇게 붙여 놓고 한국어로 여성가족부 이러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남성 이렇게 갈라치기하는 그런 네이밍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2000년대 처음 시작할 때 여성의 지위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우리 양성평등 교육도 받고 각 단체마다 성교육도 받고 좋은 기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가부의 기능과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차원에서 여가부에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저는 여가부 폐지론자가 아니고 다시 재탄생하고 아까 서범수 간사님 말씀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재탄생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도 최근에 젠더 갈등 양상으로 저희 부에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양성평등 사회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부처의 기능들이 재편해서 수요자한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 저는 117상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7상담센터는 2012년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었거든요. 그 이후로 교육부와 경찰청 그리고 여가부가 합동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돌연 여가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올해부터 사업에서 빠졌어요.

여가부 관계자가 당시에 이 사업 종료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기존에 있는 다른 청소년 지원사업과 중복돼서 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옳지가 않아요. 117상담센터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또 성매매,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상담도 하고 경찰관에 연계하고 또 피해자 지원도 연계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또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전 여가부장관은 상담센터에 인력 파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이렇게 사업 중단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사업이 무려 12년간 지속됐거든요. 그러면 12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을 한 것인지, 그렇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조세재정연구원은 117 지원사업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혜자 범위가 다양한 배경·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으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계속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예산 삭감이 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부분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만 위원님께서 교제폭력 대책 지적하실 때 차관님이

법무부와 경찰청 공조가 잘돼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7상담센터도 교육부와 경찰청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가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상담사로 보내던 인력 34명을 그냥 다 안 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국회에서 부랴부랴 15억 경찰청 예산을 마련해서 경찰청 공무원직으로 상담직원을 일부 마련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는 여가부에서 오던 상담 전문성과 인프라가 빠져서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어려움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감을 좀 느끼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종사자 서른네 분이 117에서 근무하시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그분들도 지금 저희 청소년 상담에, 1388번하고 위기청소년들 상담하는 업무에 투입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중복이라는 지적 부분 때문에 활용을 못 해서……

○**백승아 위원** 아니요, 여가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국회 운영비로 지금 34명을 고용한 거예요, 여가부가 일방적으로 전면 삭감해서.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국회에서 예산 나중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백승아 위원** 예, 국회에서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서 제대로 사업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저희 전문인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질의하기 전에 30초간 신상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선** 질의에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지금 다 시간이……

○**조은희 위원** 신상발언하겠다는데 30초만 신상발언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에 포함하라고 야멸차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선**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 온 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첫 회의라서……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장님은 안 그러십니다.

○**위원장 이인선** 아, 그렇습니까?

○**조은희 위원** 30초 달라는데 그것을……

○**서영교 위원** 그냥 질의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그러면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제가 드리……

○**조은희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좀 심각하십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부터는 제가 하겠는데 오늘은 양당 간사가 확실히……

○**조은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이유는, 제가 정쟁적인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위안부에 관한 발언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저는 이 여성가족위원회가 21대와 달리 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잘 말씀해 주시고 원만하게 또 위원장님이 우리 당 편이 아니시고 민주당 편으로 주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잘돼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 지금 여기서 정책질의를 하면서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는 건 좀 너무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행님,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인구, 가족과 양성평등 문제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추진해야 될 과제라는 문제에 동의해 주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조은희 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 논의 중인 인구부 신설 개편안이 한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기재부 인구정책 기능을 양성평등 정책 기능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조정했으면 하는 겁니다.

대행님, OECD에서 복지와 고용, 여성, 양성평등 업무를 종합 추진하는 국가는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21개국으로……

○조은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독일식 모델을 주목하고자 건의드립니다. 독일은 1994년 여성·청소년부와 가족·노인부를 통합해서 매머드 부처로 운영 중인데요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 대행님 의견 어떠십니까?

입장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여가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성평등위원회 내실화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고 서면 위원회가 거의 60%, 70% 됩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서 서면 위주가 아니고 제대로 된 논의구조로 개편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양성평등위원회가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것만큼 내실화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대통령 위원회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만약에 대통령 위원회로 격상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과 권익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기능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행님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오히려 시간이 지금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한 패러그래프를 뺐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양당 간사가 딱 협의해 오기를 12시 반에 무조건 마쳐야 되는 걸로 협의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은희 위원 야당 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 이인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전진숙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사회가 보장해야 될 네 가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권리와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사회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를 넘어서 어떤 생계수단으로서의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 지역에 살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작년 2월에 발의했던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데 실제 2024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7차 청소년 기본계획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별도로 주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2025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현재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문제 중에 요즘에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안장애가 2019년 대비 2023년에 85%가 증가가 됐고요. 우울증은 2019년 대비 2023년에 65%로 폭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19세 미만의 전 연령층에서 불안장애 및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 코로나를 저희가 겪으면서 그 이후에 후유증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맞춤형 관리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에 나타난 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립·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그리고 중년으로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감 있는 진행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북 익산과 광주 광산구의 디딤센터, 정서행동에 관련된 청소년디딤센터 준비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전진숙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2026년, 2027년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멀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금 진행 상황 잘 살펴보고 말씀하신 부분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차관님, 아까 많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부모가정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육비 대지급 제도가 되게 중요한 제도라는 걸 알고 계시고 또 여성가족부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부안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기준 조건부로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모든 아동을 기준으로 하거나 크게 예산에 차이가 없어요. 1년에 오륙십억 차이 밖에 안 나고요. 오히려 소득 재산을 선별하는 것 때문에 행정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될 우려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상위 10% 걸러 내려다가 선정 비용에만 1600억 사용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잖아요. 그런데 유엔 아동권리협약 27조에 보면 ‘부모나 아동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지고,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양육비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동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중위소득 100%로 제한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원칙 27조에 위반되는 면이 있고요. 이것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제도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좀 제안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예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하는 제도 있는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김남희 위원** 이 제도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의료기관 이용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쉽터 이용자들 경우에는 자신의 위치 노출 때문에 주민번호 대신 전산번호가 기재된 의료급여증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병원 진료 시에 본인 입증이 안 돼 가지고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건강보험 고시에 따르면 19세 미만 환자, 응급환자, 위기임산부, 장애인 등은 본인확인 예외로 두고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와 스토킹 피해자 등 폭력피해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 본인확인 예외사항에 포함시키거나 위치 노출되지 않도록 본인확인 절차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금 피해사실 입증하면 저희가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건강보험법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빠져 있다면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아 위원** 차관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 증액이 어느 정도 됐지요? 증액이 됐습니까, 예산?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올해 우리 증액이요?

○한지아 위원 예.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올해 지금 2차 심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지아 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9%……

○한지아 위원 예, 맞습니다. 9% 정도 되고 있고요.

어떤 분야가 주로 증액이 됐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아무래도 저출생 대책이다 보니까 가족 분야의 비중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여성 권익 이렇게 저희가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예, 중요한 분야들입니다. 이렇게 증액이 기능이 어렵다고…… 기능의 중요성을 정부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아마 예산을 증액하고 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강조해서 이제는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예산…… 현재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는 취약 사각지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어려운 계층에게는 더 두텁게 주는 것이 우리 국정 기조의 목표기도 하니까 더욱더 그 기능을 강화시키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 증액과 확대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366 통합솔루션지원단을 작년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1366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의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화입니다.

○한지아 위원 예, 맞습니다. 5대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전화를 걸면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단일화된 초기 창구를 통해서 피해자 긴급지원부터 일상 회복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는데, 여성가족부가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22년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의 19%와 성폭력 피해자의 9%가 남성이라는 것을 밝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8983명 중 여성 피해자가 74% 정도 되었지만 남성은 25.8%,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1366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남성 피해자의 이용률이 한 5.6%로 되고 있는데 1366의 명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맞습니다. 지금 1366이 남성들도 사용하고 있는 상담센터 전화번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에는 남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 변경에 대한 것을 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거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급한 인신매매 확인서와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인신매매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나요? 저희가 여가부에다가 범인을 잡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확인서를 받으러 오면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면 피해자 시설에 일단 입소할 수 있고요.

○임미애 위원 시설이 1366 전화를 통해서 신고한 사람들이 가는 성폭력 피해 상담센터 이런 곳으로 안내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혜택들을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따로 인신매매 관련 사건은 지원……

○임미애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올해 발생한 인신매매 사례의 경우 확인증 발급된 것의 절반이 계절근로자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농촌사회에 일손이 부족해서 일손을 돕기 위해서 국내에 왔던 사람들이 인신매매 그러니까 노동착취까지, 인신매매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노동착취도 이제 인신매매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임미애 위원 그전에는 계절근로자 관리를 이탈률을 낮추는 데만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을 했었고 현장에 돌아가지 않으면 본국에서 재산을 압류하는 형식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이걸 인권 침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제도가 폐지되고 이후에 브로커하고 중개인 개입을 막겠다라고 정부는 발표를 했는데 그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절근로자들의 인신매매 사건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확인증 발급받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구제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한 협력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폭력 피해 확인증을 발급받으러 오기 전에 그들이 당한 처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것을 신고할 수 있는 조치들이, 사전 교육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보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가부가 관심 갖고 이것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금도 연계를 하고는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이 지적

하신 부분, 타 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가부가 관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미애 위원 피해자 관리를 좀 해 달라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차관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련해서 조금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지노위에서 부당 인사 관련된 판정이 난 것도 있고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사장도 공석이고 여가부에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시고 처리하실지 좀 말씀을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일단 산하기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사장이 공석이긴 하지만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적극적인 합의 권고라든가 피해자 보호조치가 될 수 있는지 계속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4월 달에 노동청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시정지시 같은 것들도 됐더라고요. 세 달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는 뭐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관련 법령……

○장철민 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어서 여러 가지 권한들을 어쨌든 가지고 계신 거고 이사회를 통해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가부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일들을 정하고 실행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조치하고 대응 과정에서 저희가……

○장철민 위원 실제로 언론 기사도 보고 저희도 자료를 확보해서 보니까 소송 대응하는 과정이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등 해서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비용지출 같은 것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지노위나 노동청, 다른 정부기관에서의 시정지시나 이런 요구사항들도 하나도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사장 공석 사태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여가부가 너무 방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내·외부로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권한과 책임과 법적인 걸 가지고 있는 지노위와 노동청에서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와 대응 과정에 그

린 부분들이……

○**장철민 위원**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물론 직장 내 괴롭힘과 여성이나 다른 피해자 이슈랑은 어떻게 보면 대상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피해자 감수성에서 어떤 일들에 접근하고 그런 어떤 절차를 구성하고 실제로 그런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취지나 그쪽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가부가 다른 피해자 지원하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른가, 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이 이렇게 하시는지……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이 부분에 대해서……

○**장철민 위원** 이것 확실히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철민 위원** 반성하시고 어떤 식으로 조치하실지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다음은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차관님, 앞서 답변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인사청문회에서 그것도 전 국민의 역사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위안부는 논쟁적 사안이라고 말한 것 이상의 명예훼손은 참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방통위에 공식적인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여기에 대응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작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해까지 7억 9100만 원이던 예산이 올해는 갑자기 0원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도별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보호처분 가운데 3분의 1 내지 절반은 상담위탁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상담위탁 처분은 실행에 옮기기 어렵습니다.

상담위탁 처분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법원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각급 법원에서 지정된 253개 수탁기관 중 95개 상담소가 예산 삭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024년 3월 기준 11개 수탁기관 가운데 무려 10개 상담소가 예산 삭감에 영향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담 비용은 가해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워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차관님, 가정폭력 가해자 중에서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가해자 부담 원칙이라는 이유로 사업비를 없애 버린다면 돈이 없는 폭력 가해자는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론을 내려도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결과 가난한 피해자는 가정폭력의 굴레에 계속 남게 됩니다. 이런 참담한 예산 삭감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작년 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대부분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편성 여부 꼭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정말 방통위원장이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해서 논쟁적 사안이라고 말하는 그 생각은 무엇일까요? 누구 눈치를 보는 걸까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가위에서 모두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하고, 김선민 위원님 말씀처럼 여가부가 일정 정도 입장을 표명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 문제만큼은 여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이야기만이 아닌 거지요.

일본과의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독도에 우리 재외공관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재외공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외공관 표시가? 여행자들이 지도를 찾으면 멕시코에도 워싱턴에도 이렇게 재외공관이 있는 곳에 재외공관 표시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지도에 우리 독도에 재외공관 표시가 있어요. 독도가 우리 땅 아닙니까? 그런데 외교부가 여행 가이드를 만들었는데 ‘재외공관 여기 있으니까 연락주세요’ 할 때 독도에 재외공관 표시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거는 여야 없이 다 나서서 짚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커뮤니티 공간입니다. 혹시 안에도 있습니까? 저거 저희가 5억 갖다가 만들었어요. 정말 예뻐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센터를 제가 가 보질 못 해서 여기서 한번 찾아봤어요. 안 나와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워져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없어요. 어떻게 찾아가지요? 가는 애들은 위험한 애들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누가 가겠어요.

청소년센터도 예산을 만드세요, 여가부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곳곳에 청소년센터 예산을 내리세요. 신청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렇게 예쁘게, 가고 싶게, 가서 선생님들이 기다리게, 다른 아이들과도 같이 쉴 수 있게…… 너희만 모여 있어 이러면 누가 가겠어요? 너희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우러지면서, 밤에 못 들어가면 거기서 그 선생님이 돌봐줄 수 있게, 아름답고 예쁘고 집보다 더 좋아야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 이번에 여가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시설을 설치·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협조가 긴

밀하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지자체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가서 이렇게 줄이고, 꼭 예산 만드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여야에게 예산 만들러 오는지 저희 보겠어요. 예산 만들러 오시고 해 달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집 밖 아이들이 있는 공간도 예쁘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과 같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그래서 좀 더 특별히 보호받는 이런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면 아이들이 미래에 더 좋은 지도자로 크지 않을까.

.....  
○위원장 이인선 좋은 질의였습니다.

그러면 김한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입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좋은 질의 해 보고 싶습니다.

차관님, 요즘 현안 중의 하나가 교제폭력 이슈입니다. 오늘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가부 차원에서 대책 발표하셨지요? 브리핑을 한 건 아니고 피해자 간담회 하고 나서 그거에 관련된 보도자료만 내셨는데요. 피해자 지원 대책을 확충하는 부분, 피해자 관련해서는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제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지요.

정부 부처가 원래 함께 논의를 하고 아까 실무협의제도 있다고 하셨는데 왜 부처가 함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합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저희가 이 사건이 발생한 뒤로 5월 달에 제2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검찰청하고 그다음에 여가부 그다음에 경찰 이렇게 해서 이 대책 방안을 발표하는 여부에 대한 논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쪽은 법 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의라든가 교제폭력 행위 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경찰은 기본적으로 청장님께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을 벌써 발표를 하셨어요.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는 안 하겠다라는, 검찰은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아니요,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인데 그게 그 부분……

○김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은 법무부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하는 거고. 필요성 측면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스토킹 피해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구제 부분 그다음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거냐 이런 게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이제까지 여가부 업무라는 게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지요.

스토킹처럼 교제폭력도 접근금지를 할 거냐 아니면 가정폭력처럼 분리조치를 할 거냐

그냥 일반 폭력처럼 반의사불벌죄로 둘 거냐 크게 세 가지 이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여가부·법무부·경찰청이 발표를 해야 돼요, 다른 경우들처럼. 그 발표라는 건 그냥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장관급들 3명이 나와서 공동으로 발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실무협의체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실무협의체 관련해서 스토킹 피해 때도 했거든요. 여가부랑 경찰청의 실무협의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작년 11월 국감 때 제가 문제 제기했는데 경찰청 주변 식당에서 점심 먹으면서 해요. 회의자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했어요. 장관님이 개선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2주 후에 작년 11월에 똑같이 경찰청 주변 식당에서 점심 먹으면서 보고자료 없이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부처 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협의를 제대로 못 끌어내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제폭력도 이런 실무협의체에 맡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역할을 여가부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부탁드리고 해야 됩니다. 다시 교제폭력이 또 사회 이슈가 되면 모든 책임은 다 여가부에 돌아갈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지적하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범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사 간의 약속을, 협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다음부터는 민주당 위주의 편파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이인선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다른 위원회는 안 그렇습니다. 민주당 위원장님……

○서범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서영교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

○조은희 위원 그만 아닙니다. 돌아보십시오.

○서범수 위원 서영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해서 법안 발의한 게 몇 개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떡하든지,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쟁거리가 없잖아요. 어떡하든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제폭력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교제폭력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요, 현재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지금 교제폭력 특별법은 따로 제정이 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가정폭력, 스토킹폭력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성폭력방지법 그 부분에 의



해서 하는데 좀 사각지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김한규 위원님처럼 분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가정폭력 특별법이든지 스토킹 처벌법이든지 이런 법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없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러니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또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분리조치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법을 만든다면서요?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대책을 만든다면서요? 그렇지요, 차관님?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려고 합니까, 여가부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법 개정 관련해서 현장 의견을 좀 들었는데 새로운 교제폭력 근거법을 만들자라는 입장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그 법에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여가부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장 의견이 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정보다는 아마 개정하는 쪽이 더 적극적인……

○**서범수 위원** 어떻게,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집어넣자?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그래서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이런 부분 현행법을 잘 개정해서 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는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현장 의견은 그렇지만 국회에 제정하고 개정하는 법들이 다 지금 발의가 돼 있거든요. 그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관련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가부에서 이 관련 부서들 너무 눈치 보시지 말고요. 여가부의 입장을 고수를 하라, 그렇게 고수를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관계기관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이렇고 이렇고, 결과가 이래서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미리 여가부에서 예단을 해서 ‘이것은 어려울 거야’ 꼬리 내리지 말자, 여가부답게 여가부의 일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저희가 말씀하신 의견들을 정리해서 법무부에 같이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전달만 할 게 아니고 법무부에 주장을 하세요, 주장을. 제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여가부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법무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법사위입니다.

○**위원장 이인선** 아무튼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여성가족위원회가 검직 위원이어서 우리 양당 간사가 협의해 온 것을 잘 지켜 드려야 다음에도 출석률이 좋고, 또 직무대행께서도 힘이 나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부를

위한 양 날개로 같은 목소리로 잘 날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오늘 장관직무대행이나 뒤에 계신 기관장께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정책 수립하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공식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 또 직무대행님도 잘해서 우리 우려와 걱정이 현실화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본인이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세계 중심이 돼서 일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홍보나 전파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부가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특히 조은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숙 장관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출석 위원(17인)

김남근 김남희 김상욱 김선민 김용만 김한규 백승아 서범수 서영교 이달희  
이연희 이인선 임미애 장철민 전진숙 조은희 한지아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정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황윤정  
여성정책국장 최은주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대변인 김가로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신경식  
청소년정책관 최문선

가족정책관 최성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장명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효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직무대행 전주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신보라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4)  
 7월 18일 회부됨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0)  
 이상 3건 7월 19일 회부됨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17)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8)  
 이상 3건 7월 22일 회부됨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7)  
 7월 24일 회부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08)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1)  
 이상 2건 7월 25일 회부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0)

7월 29일 회부됨